극지해소식

No.148
30 Apr
www.kmi.re.kr

책임 김엄지 북방·극지전략연구실장 **감수** 김민수 경제전략연구본부장
작성 김은우, 김주형, 김지영, 박예나, 엄단비, 정다현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락처 정다현 051)797-4747 (dhj82@kmi.re.kr)

북극 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북극이사회 | ICC, 북극이사회 덴마크 의장국 프로그램에 '강력한 원주민 역할' 기대 …… 2
북극이사회 | 덴마크,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사람 중심의 북극 협력' 강조 …… 3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 북극 항로 통제권 조사 착수 및 공개 의견 수렴 …… 5
러시아 | 아르한겔스크 주, 북극 우선 개발 구역 제도로 경제 성장 가속화 …… 6
러시아 | 야쿠츠크, 북극 원주민 보호를 위한 민족학 심사 제도 법률 개정 …… 7
러시아 | 추코트카 자치구 수도 아나디르에서 제1회 지역 사냥꾼 포럼 개최 …… 8
캐나다 | 2025년 캐나다 북부 연방 총선 결과 및 각 정당이 내선 선거공약 …… 9
노르웨이 | 북극 지역의 한정된 농지 지키기 … 지속 가능한 관리 모색 …… 13
아이슬란드 | 북극 방위 정책 수정 추진…유럽 연합 가입 협상 재개 검토 …… 15
덴마크 | 그린란드·덴마크, 동맹 강화…트럼프, 영토 매입 의사 다시 표명 …… 16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 원자력 쇄빙선 '야쿠티야', 톰스크 제조 업체에서 핵심 부품 받아 …… 18
러시아 | 야쿠츠크 자타이 조선소 시범 운영 … 북극 내륙 물류 핵심 거점 육성 …… 19

옵서버 국가 정책·산업

한국 | 세계 최초로 '대서양화(Atlantification)', 서북극해까지 확장 확인 …… 20
중국 | 중국, 러시아 생산 북극 LNG 추가 구매 검토 …… 22
중국 | 중국, 북극 보퍼트해에서 수중 음향 기술 시험 …… 23

남극 소식

중국, 남극에 '삼협 남극의 눈' 전파망원경 가동 …… 24
중국, 남극 대륙에서 영향력 지속적으로 확대 …… 25
IAATO, 정관 개정으로 남극 홍보대사 역할 강화 26

극지의 창(窓)

지정학과 기후의 전환점에서 바라본 캐나다의 새로운 북극 외교정책 …… 27

북극과 사람

아사바스칸 족의 지속성과 변화: 문화, 자치,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 33

KMI 행사 이야기

2025 한국-노르딕 혁신의 날 평등 세션: 해양 산업의 미래를 여는 혁신 …… 38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본 소식지는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ICC, 북극이사회 덴마크 의장국 프로그램에 ‘강력한 원주민 역할’ 기대 (2025. 4. 15.)

2025년 5월 12일, 덴마크 왕국(그린란드·페로제도 포함, 이하 덴마크)이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덴마크는 최근 공식 의장국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그 중심에 ‘북극 원주민과 공동체’의 권리와 참여를 강조했다.

의장국 프로그램은 ▲북극 원주민과 공동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및 에너지 전환, ▲해양, ▲북극의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총 5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모든 활동 전반에 걸쳐 원주민 권리와 참여가 핵심 실행 원칙(cross-cutting principle)으로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 북극 원주민 대표기구인 환북극 이누이트 이사회(Inuit Circumpolar Council, ICC)는 “원주민의 권리와 지식이 모든 분야에서 고려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덴마크는 “원주민의 지식, 관점, 권리를 모든 활동에 걸쳐 반영하겠다”고 명시하면서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정책 전반에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ICC는 이에 대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실행력 있는 정책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북극의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분야에서 원주민 주도의 협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원주민 단체들은 북극 지역의 기후 변화가 자치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ICC는 이번 의장국 프로그램을 통해 “북극 원주민은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북극의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를 이끄는 주체”라고 재차 강조하며, 북극이사회 활동에 구조적인 참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북극이사회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3년 노르웨이 의장국 체제에서 제한적으로 프로젝트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단체(Permanent Participants)의 역할과 존재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북극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포용적 국제협력 구축을 위해, 원주민과의 동등한 파트너십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글 정다현 dhj82@kmi.re.kr

https://www.highnorthnews.com/en/icc-welcomes-strong-emphasis-indigenous-peoples-arctic-council-chairship-programme

https://www.highnorthnews.com/en/kingdom-denmarks-upcoming-arctic-council-chairship-indigenous-and-arctic-people-top-agenda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덴마크,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사람 중심의 북극 협력' 강조 (2025. 4. 27.)

글 정다현 dhj82@kmi.re.kr

The Kingdom of Denmark's Chairship of the Arctic Council, 2025–2027.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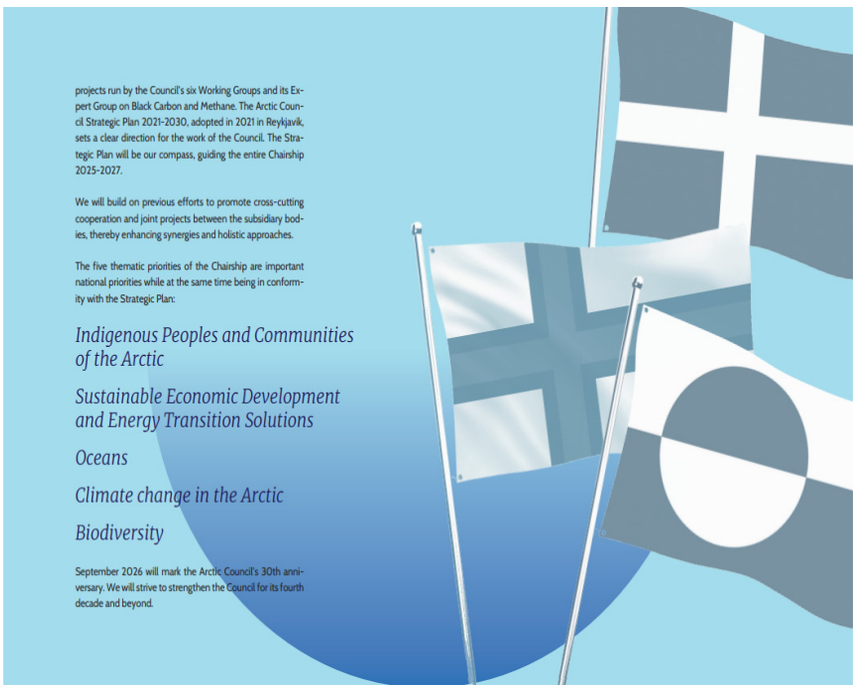
2025년 5월부터 2027년까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의장국을 맡게 된 덴마크 왕국(The Kingdom of Denmark, 이하 덴마크)이 공식 의장국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의장국은 덴마크 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페로 제도가 함께 참여하며, "포용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북극 협력"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의장국 프로그램은 ▲북극 원주민과 공동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및 에너지 전환, ▲해양, ▲북극의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총 5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북극이사회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1–2030)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덴마크는 북극 원주민과 청년의 참여를 모든 의제에 통합하는 포괄적 협력구조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원주민 전통지식(Indigenous Knowledge)을 과학적 지식과 동등하게 반영하는 접근을 강조하며, 북극이사회 내 모든 사업과 결정을 "북극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북극 사람들에 의한 협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장국은 북극 지역 내 의료 준비태세 향상,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전략, 성평등 이슈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인권·보건 협력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북극 청년들의 직접적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소수자 관련 자료 부족 해소 및 정책 개선 기반 마련도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다.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녹색 전환과 블루바이오 경제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해조류 양식, 지속가능한 어업, 원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등 다양한 실질 사업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북극권 국가 간 디지털 통신·운송·무역 연결성(connectivity) 강화도 강조되었다.

해양 의제에서는 국제 회의를 통해 북극 해양관리, 생물 이동, 침입종 확산, 해양오염 대응 방안 등을 다루고, 지역 해양보호구역(OECM) 및 공간계획 도구 개발을 확대한다. 북극 이사회 산하 해양경비대 포럼(ACGF)과 협력해, 크루즈선 사고 대비 훈련 및 해양 비상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덴마크 의장국은 북극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2025~2035 행동계획' 수립, 침입 외래종 연구 강화, 북극 청정지역 보전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기후·오염·생물다양성 삼중 위기에 대응하는 복합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의장국 프로그램은 2026년 북극이사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수립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몇 년간 북극이사회 내 협력에 영향을 미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인식하면서 북극 주민과 원주민의 참여를 중심에 두는 포용적 협력,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북극이사회의 미래 비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북극지역의 안정과 협력 메커니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 북극항로 통제권 조사 착수 및 공개 의견 수렴 (2025. 4. 28.)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가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를 포함한 주요 국제 해상 항로에 대한 제약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마감일(5월 13일)도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위원회의 조사 명령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해역이 빙결되지 않아 북극해 항로(Northern Sea Passage)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단축 경로가 생겨 운항 시간과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통제권을 둘러싼 국제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장 짧은 해상 항로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며, 통행료를 부과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은 국제적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 언급된 Northen Sea Passage는 러시아 북부 연안을 따라 이어지는 해상 항로 즉 NSR(북동 항로)을 의미한다.

이 조사 대상 초크 포인트는 북극항로 (Northern Sea Route), 영국 해협 (English Channel), 말라카 해협 (Strait of Malacca), 싱가포르 해협 (Singapore Strait), 파나마 운하 (Panama Canal), 지브롤터 해협 (Strait of Gibraltar), 수에즈 운하 (Suez Canal) 등이다.

위원회는 북극항로에 대해 특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접근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해관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군사 기지와 쇄빙선을 포함한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어, 북극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항로는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과 미사일 방어 전략에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나토 모두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역 항로와 자원 접근권을 둘러싼 긴장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위원회는 경고했다.

연방 해사위원회는 조사에서 외국법, 군사 활동, 기타 비우호적 조건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업계, 환경단체, 외교 전문가 등에서 자료와 의견을 수집하여 미국 연방법 개정 또는 새로운 규제 도입의 필요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기국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4/28/u-s-regulator-eyes-arctic-shipping-chokehold-as-key-deadline-approaches/

북극권 국가 정책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주, 북극우선개발구역제도로 경제 성장 가속화 (2025. 4. 24.)

알렉산드르 츠이불스키(Aleksandr Tsybulsky) 아르한겔스크주 주지사는 4월 23일, 아르한겔스크주 의회 본회의에서 북극개발우선구역과 선도 사회경제개발구역(TOP)과 관련된 의회 연설에서 '노던 캐피탈(Northern Capital)'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츠이불스키 주지사는 아르한겔스크주가 연방 및 북극 개발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과 투자 유치를 확대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 연방 북극지대(AZRF) 제도에서 지금까지 101개의 프로젝트가 실현되었고, 총 2억 4,000만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 3,6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내 첫 선도 사회경제개발구역인 '노던 캐피탈'의 설립과 관련하여, 해당 구역이 러시아 정부의 지원 아래 2023년 조성되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단지와 레지던트 전용 인프라 부지를 기반으로 약 3,300만 달러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준, 259개 기업이 AZRF 내 레지던트 자격으로 29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수년간 약 21억 달러의 추가 투자 유치와 4,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계획되어 있다. 이 같은 프로젝트에 따른 예상 세수 효과는 약 7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츠이불스키 주지사는 “아르한겔스크주는 연방 및 북극 지원 메커니즘을 자신 있게 활용하고 있으며, 북극지대 거주자 제도는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노던 캐피탈’에는 건축 자재 생산부터 의약품 제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었으며, 지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아크틱 쿼터(Arctic Quarter)’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극동 지역의 ‘극동 쿼터’ 모델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총 20만 평방미터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6,000 명 이상의 인구(위험 주택 이주자 포함)를 수용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총 인프라 투자액은 약 9,000만 달러이며, 그 중 약 1,000만 달러는 연방 예산으로 지원된다. 또한 이 지역에는 현대식 물류·수리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고 있는데, 북극항로(NSR) 개발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는 “이 프로젝트들은 NSR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글 김지영 jiyeong111@kmi.re.kr

https://arctic-russia.ru/news/arkticheskiy-potentsial-arkhangelskaya-oblast-narashchivaet-ekonomiku-cherez-mekhanizmy-azrf/

북극권 국가 정책

러시아

야쿠츠크, 북극 원주민 보호 민족학 심사 제도 법률 개정 (2025. 4. 26.)

야쿠츠크 공화국의 북극개발 및 북부 원주민 문제 담당부는 북극 원주민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민족학적 심사 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야쿠츠크 공화국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공식 법률명은 「북부 지역의 전통 거주지, 전통 생계 활동지 및 전통 자연 이용 지역에 거주하는 북극 소수 원주민을 위한 민족학적 심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은 야쿠츠크 정부의 입법 이니셔티브로 추진되었으며, 북극개발부 산하 소수민족·법률·민족학 심사 부서가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개정의 목적은 북극 지역 원주민의 전통 생활권 보호를 위한 민족학적 심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에는 사회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일부 작업을 민족학적 심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이 있었으나, 실제로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민족학적 심사 대상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계획 중인 활동' 외에도 '이미 진행 중인 활동'도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법률 제1조에서는 '북극 소수 원주민 공동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공동체, 협동조합, 지방정부 인가 단체 등)로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민족학적 심사의 의무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조항에 '또는 이미 시행 중인(and/or implemented)'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법률 제5조에는 사업 시행자가 계획된 활동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여, 공공 참여와 투명성 원칙을 강화하였다. 법률 제6조는 지방 자치단체를 민족학적 심사 주체로 명시하였으며, 토지 소유권자가 없는 경우 이들 자치단체가 심사 참여와 보상 권리를 갖도록 했다. 법률 제7조는 새롭게 개정되어, 심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요건(최소 3인의 전문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 제8조 제7.2항에서는, 민족학적 심사에서 긍정적 결론이 나올 경우 이를 북극 원주민 대표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제2차 심의(독회)에서 채택되었다.

글 김지영 jiyeong111@kmi.re.kr

https://yakutia-daily.ru/obnovleniya-zakonodatelstva-yakutii-v-oblasti-etnologicheskoj-ekspertizy/?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dzen.ru%2Fnews%2Fsearch

북극권 국가 정책

러시아

추코트카 자치구 수도 아나디르에서 제1회 지역 사냥꾼 포럼 개최 (2025. 4. 29.)

5월 6일, 러시아 추코트카 자치구의 수도인 아나디르(Anadyr)에서 첫 번째 지역 사냥꾼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추코트카 자치구 자연자원 및 생태부가 주최하며, 사냥, 자원 이용(전통적 수렵 방식 포함), 학계, 역사 및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포럼에는 추코트카 자치구의 블라디슬라프 쿠즈네초프(Vladislav Kuznetsov) 주지사, 안나 오트케(Anna Otke) 연방위원회(상원)의 상원의원, 엘레나 예프튜호바(Elena Evtukhova) 국가두마(하원) 지역 대표, 알렉산드르 페도토프(Alexander Fedotov) 러시아 천연자원부 산하 수렵 정책 및 규제부서장 대행, 알렉산드르 사브첸코(Alexander Savchenko) 추코트카 자연자원 및 생태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치정부 관계자, 비영리 단체, 과학 기관, 보호구역 담당자, 수렵업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포럼 참가자들과 내빈들은 특수 자연 보호 방안, 원주민의 전통적 수렵 방식과 생활양식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수렵업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추코트카 지역 내 수렵 자원의 보존 문제, 특정 생물 종의 개체 수 현황, 수의학적 상황과 관련된 연구 및 2024년도 해양포유류 수렵 결과 등이다.

또한 과학분야 대표들은 인간과 북극곰 간의 갈등 최소화 방안, 자치구 서부 지역에서의 야생 순록 모니터링, 그리고 야쿠티야에서 진행된 원격 순록 추적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는 혁신 분야 포럼에서는 '지역 수렵업 정보분석 시스템'과 시민 참여형 모바일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이 내용은 자치구 내 '곰 순찰대'의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보호구역 내 생태관광과 자연 보호 간의 조화, 보호구역의 보호 방안, 수렵업의 발전 가능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며, 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 사냥꾼들이 기여한 역사적 공로도 함께 조명할 계획이다. * 조국전쟁(1941~1945) : 제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을 일컫는 용어로, 러시아에서는 국가적 희생과 승리를 상징

글 김지영 jiyeong111@kmi.re.kr

https://arctic-russia.ru/news/pervyy-regionalnyy-forum-okhotnikov-chukotki-proydet-v-okruzhnoy-stolitse/

북극권 국가 정책

캐나다

2025년 캐나다 북부 연방 총선 결과 및 각 정당이 내건 북극 공약 (2025. 4. 29.)

캐나다 전체 국토의 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의 유콘(Yukon),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누나부트(Nunavut)는 지난 4월 28일 캐나다 연방 총선에 참여했다. 각 지역의 정치적 특성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반영하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총선 결과를 정리했다.

❶ 누나부트(Nunavut): 신민주당의 근소한 승리[1)]

누나부트는 신민주당(NDP)의 로리 이들루트(Lori Idlout) 후보가 37.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들루트 의원은 2021년에 이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누나부트에서 신민주당이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연속 당선을 이룬 사례이다. 그는 선거 후 신민주당의 목소리가 누나부트에서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❷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새로운 자유당 대표 당선[2)]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자유당 출신의 레베카 알티(Rebecca Alty) 후보가 당선되었다. 옐로나이프(Yellowknife)시장 출신인 알티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선거 후 시장직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땅(Our Land for the Future)”라는 원주민 수호 프로그램의 입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❸ 유콘 준주(Yukon Territories): 자유당에서 재선 성공[3)]

유콘 준주에서는 브렌던 핸리(Brendan Hanley) 자유당 후보가 52.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핸리 의원은 2021년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주권 문제, 기후변화 등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1)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4/29/ndp-leads-in-nunavut-liberals-projected-to-win-nunavik/
2)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4/29/liberal-rebecca-alty-projected-to-win-election-in-n-w-t/
3)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4/29/liberal-brendan-hanley-projected-to-win-re-election-in-yukon/
4)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4/29/booths-closed-early-or-didnt-open-at-all-in-some-nunavik-villages/

북극권 국가 정책

캐나다

❹ 누나빅(Nunavik): 자유당 후보의 승리[4)]

또 다른 이누이트 거주지역인 누나빅에서는 자유당의 맨디 걸-매스티(Mandy Gull-Masty)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일부 누나빅 지역에서 기상 악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투표소가 조기 폐쇄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아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도 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캐나다 북부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과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반영한다. 누나부트에서는 NDP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고, 누나빅과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 준주에서는 자유당이 우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누나빅에서는 투표소 운영 문제로 인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었으며, 이는 향후 선거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캐나다 연방 총선 북부 지역 당선자

左上) Nunavut 당선자 Lori Idlout
(출처: Dustin Patar/Canadian Press/Eye on the Arctic)
右上) N.W.T 당선자 Rebecca Alty
(출처: Nadeer Hashmi/CBC/Eye on the Arctic)
左下) Yukon 당선자 Brendan Henley
(출처: Jackie Hong/CBC/Eye on the Arctic)
右下) Nunavik 당선자 Mandy Gull-Masty(출처:Marie-Laure Josselin / Radio-Canada/CBC)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블록퀘벡당 및 보수당, 자유당, 신민주당 등이 북국과 관련된 정책 공약(북극 방어 전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❶ 군사 지출 목표

- 블록 퀘벡당(Bloc Québécois):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나토)의 GDP 대비 2% 방위 지출 목표를 지지하며, 방위 기술 주권을 강조한다. F-35 전투기 계약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소스 코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극권 국가 정책

캐나다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4/25/arctic-at-a-crossroads-run-down-on-how-canadas-political-parties-plan-to-defend-the-north/

표 출처: 저자 정리

〈표〉 정당별 북극 방어 정책 비교

구분	블록퀘벡당 (Bloc Québécois)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자유당 (Liberal Party)	신민주당 (NDP)
군사 지출 목표	• NATO의 GDP 2% 지출 기준 지지 • F-35 계약, 소스 코드 확보 없을 시 중단 주장	• 2030년까지 GDP 2%로 확대 • 북부 장비·기지 확장 우선	• 2030년까지 2% 초과 달성 계획 • 민군 겸용 인프라 구축	• 2032년까지 점진적 2% 도달 • 지역사회 중심 인프라 중시
북극 주권 및 방위 기술	• 퀘벡 조선산업 중심 주권 강화 • 유럽과 외교 협력 강조	• 쇄빙선·장거리 탐지기 도입 • 레인저 인력 2천→4천 증원 • 청소년 훈련생 1만 명 추가 • AWACS 도입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 원주민과 협력한 민군 인프라 • 심해항만 네트워크 • 캐나다-유럽 북극 안보 협정 • NORAD 업그레이드 추진	• F-35 취소 • 국내 항공기 생산 및 유지관리 통해 일자리 창출
군사 인프라 및 주둔	• 조선 산업 통한 방위경제 육성	• 이칼루이트·처칠·이누빅 등 북부 기지 확장 • 옐로나이프-그레이스 베이 연결 600km 사계절 도로 구축	• 신형 잠수함·쇄빙선 • 공중·수중 드론 함대 강화	• 군사·지역 공동체 모두에 혜택 주는 인프라 건설

- 보수당(Conservative Party): 2030년까지 방위 지출을 GDP의 2%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며, 북부 지역의 군사 장비와 기지 확장을 우선시한다.

- 자유당(Liberal Party): 2030년까지 2% 목표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며, NORAD(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현대화와 민군 겸용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다.

- 신민주당(NDP): 2032년까지 점진적으로 방위 지출을 2%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북부 지역 사회에 직접 혜택을 주는 인프라에 우선순위를 둔다.

북극권 국가 정책

캐나다

❷ 북극 주권 및 방위 기술

- 블록 퀘벡당: 북극 주권을 옹호하며, 유럽과의 외교 및 국제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 보수당: 쇄빙선과 장거리 탐지 항공기를 포함한 첨단 장비를 통해 북극 방어를 강화하고, 캐나다 레인저 수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며, 10,000명의 청소년 훈련생을 추가 모집하겠다고 공약하였다.

- 자유당: 원주민 공동체와 협력하여 민군 겸용 인프라를 현대화 하고, 북서항로의 연중 보호를 위한 심해 항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캐나다-유럽 간 북극 안보 협정 체결과 NORAD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 신민주당: F-35 전투기 계약을 취소하고, 캐나다 내에서 항공기를 생산 및 유지·보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지지한다.

❸ 방위 인프라 및 북부지역 군사 주둔

- 블록 퀘벡당: 퀘벡의 조선 산업을 활용하여 북극 방어를 강화하고, 방위 이니셔티브를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 보수당: 이칼루이트(Iqaluit), 처칠(Churchill), 이누빅(Inuvik) 등 북부 도시의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노스웨스트 준주(N.W.T)의 옐로나이프(YellowKnife)에서 누나부트(Nunavut)의 그레이스베이(Grays Bay) 까지 이어지는 600km 사계절 도로를 포함한 북극 안보 경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 자유당: 신형 잠수함, 쇄빙선, 공중 및 수중 드론 함대를 확장하여 방위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신민주당: 군사와 지역 사회 모두에 혜택을 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북극권 국가 정책

노르웨이

북극 지역, 한정된 농지 지키기…지속 가능한 관리 모색 (2025. 4. 25.)

글 엄단비 dbu@kmi.re.kr

노르웨이 북부 베스트보고이 지역의 농업 지형의 모습(사진: 핀 아르네 하우겐 / 니비오)

https://www.thebarentsobserver.com/partner-content/sustainable-governance-of-agricultural-land-in-arctic-norway/428736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토지와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부 노르웨이의 제한된 농지를 개발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땅들이 적극적으로 농사에 활용되고, 잘 관리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외부 방목지(outfields)의 사용 역시 유지되어야 한다. 토지 관리의 목표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가 동일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노르웨이 바이오경제 연구소(Norwegian Institute of Bioeconomy Research, NIBIO) 프로이디스 길룬드(Frøydis Gillund) 연구원은 "북부 노르웨이는 식량 생산이 가능한 토지가 매우 적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는 경작지와 경작 가능한 땅을 모두 포함해 토양 보전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활발한 농사 실천을 통해 토양의 질과 건강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외부 방목지를 제한하는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현상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부 및 온대 지역이 세계 식량 생산과 노르웨이 식량 안보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피츠베르겐은 북극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북극과 유럽 본토의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연구진은 CoastShift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핀마르크주 알타(Alta), 트롬스주 트롬쇠(Tromsø), 노르란주 베스트보고이(Vestvågøy) 등 북부 노르웨이의 세 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농지 및 외부 방목지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노르웨이

https://www.thebarentsobserver.com/partner-content/sustainable-governance-of-agricultural-land-in-arctic-norway/428736

길룬드 연구원은 "우선 각 자치단체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검토해 목표와 달성 방안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농지 관리를 가로막는 자원 관련 장벽을 확인했고, 세 지역을 위한 농지 회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2023년에 도입된 국가 토양 보호 전략은 토지 계획 및 건축법의 계획 수립을 가장 중요한 토양 보호 수단으로 규정했다. 지자체는 기본적인 계획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 체계는 가장 중요한 관리 도구다. 길룬드 연구원은 "선정된 세 자치단체 모두 국가 및 지역 정책에 부합하는 최신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사용하는 핵심 관리 도구는 지역 사회 종합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이다. 특히 토지 이용 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과 농업 등 특정 용도를 지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지역 모두 주요 농업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토지 이용 계획 내 보존 구역으로 설정해 중요한 경작지와 방목지를 보호하고 있다. 북부 노르웨이의 아한대 농업은 세계 최북단 농업으로, 재배 기간이 짧고 혹독하다. 핀마르크 내륙은 재배 기간이 100일에 불과하지만, 노르란 외곽 해안 지역은 180일까지 연장된다.

힐데 할란 연구원은 "세 자치단체 모두 경력이 많은 전문 팀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 협업 절차도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역량 부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 절차 지연, 경작 의무 집행 부족, 농업 혁신 지원 기회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정비(plan overhaul)'가 매우 중요하지만, 수백~수천 건에 달하는 오래된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법적·행정적 부담이 크다. 법규 복잡성 문제도 지적됐다. 규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복잡해져 주민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졌으며, 규제 요구가 늘어나면서 전문적 토지 평가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연구소는 2023년 채택된 국가 토양 보호 전략을 바탕으로 별도의 농지 회계 시스템을 개발했다. 알타, 트롬쇠, 베스트보고이가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연구소 린다 아우네-룬드베르그(Linda Aune-Lundberg)연구원은 "농지 회계 시스템은 농지 특성과 용도 계획을 연결해 얼마나 많은 농지가 개발, 신규 경작, 또는 초목화(overgrowth)됐는지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농지 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작물 재배 가능성, 개발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수재 방지 효과 등도 평가할 수 있다. 아우네-룬드베르그 연구원은 "이 도구를 통해 농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아이슬란드

북극 방위 정책 수정 추진 … 유럽연합 가입 협상 재개 검토 (2025. 4. 28.)

아이슬란드가 자국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재개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최근 보도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미국과 유럽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슬란드는 냉전 시기 나토(NATO) 북극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북극 지역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상비군을 두지 않고 있지만, 나토 방위 작전에는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카트린 야콥스도티르(Katrín Jakobsdóttir) 아이슬란드 총리는 “아이슬란드에서는 과거에도 군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인 방위와 동맹을 포기할 수는 없다. 방위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이슬란드에서는 국가 안보 강화를 둘러싼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동시에 EU 가입 협상을 재개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야콥스도티르 총리는 “보다 시급한 국내 현안이 해결된 이후에 EU 가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아이슬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에너지 자원 개발과 화산 활동 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 역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관광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자국 안보상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해저 지형은 러시아 잠수함 탐지에 유리해 북극권 방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글 엄단비 dbu@kmi.re.kr

https://112.ua/en/economy/natos-arctic-outpost-iceland-revises-its-defense-policy-81067.html

북극권 국가 정책

덴마크

그린란드·덴마크, 동맹 강화‥트럼프, 영토 매입 의사 다시 표명 (2025. 4. 27.)

2025년 4월 27일 덴마크 콩겐스 룽뷔 마리엔보르에서 회담에 앞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오른쪽)가 옌스-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총리(왼쪽)를 맞이하는 모습[사진: 리츠아우 스칸픽스/마즈 클라우스 라스무센/로이터]

https://www.ntd.com/greenland-denmark-agree-to-strengthen-alliance-as-trump-offers-to-buy-territory_1009961.html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4월 27일(현지 시간)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극 섬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양국 정상은 코펜하겐에서 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번 회담에는 옌스-프레데릭 닐센(Jens-Frederik Nielsen) 그린란드 신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가 참석했다. 닐센 총리는 예정된 3일간의 공식 방문을 위해 4월 26일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닐센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기에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북동쪽 북극해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전략적·정치적·경제적 가치가 높다. 특히 최근 미국이 파나마 운하 물류 지연 사태를 겪으며 북서항로를 대체 해상 운송로로 주목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린란드는 천연자원 또한 풍부해, 중국과 러시아, 미국 모두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러시아 해군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해야 국가 및 세계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극권 국가 정책

덴마크

포닐센 총리의 이번 덴마크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입해 미국령으로 삼고자 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는 코펜하겐으로부터 그린란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지도부는 “그린란드의 미래는 오직 그린란드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매입 제안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닐센 총리는 “미국과 향후 발전적 파트너십을 원하지만, 무엇보다 존중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팔 수 있는 부동산 물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닐센 총리는 트럼프 취임 전 체결된 누크(Nuuk) 주재 미국 영사관 확장 계획이 일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취임 이후 접촉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그린란드와 덴마크 간 관계는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테 에게데(Mute Egede) 전 그린란드 총리는 과거 덴마크 당국의 강압적 정책을 "역사적 집단학살"이라고 비난하며 독립론을 적극 주장했다. 에게데 전 총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긴밀히 협력할 파트너와 무역 파트너를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세기 덴마크 당국이 자행한 1960년대 강제 피임 정책 등이 드러나면서, 그린란드 내 독립 요구는 최근 몇 년 새 더욱 확산됐다. 에게데 전 총리는 “역사와 현실은 덴마크와의 협력이 완전한 평등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에게데 전 총리는 2019년부터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에 대해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판매용이 아니며, 결코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국내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 지원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양국 관계의 현대화”라고 설명했다. 덴마크는 최근 미국과의 북극 지역 방위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닐센 총리와 프레데릭센 총리는 북극 지역 방어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글 엄단비 dbu@kmi.re.kr

https://www.ntd.com/greenland-denmark-agree-to-strengthen-alliance-as-trump-offers-to-buy-territory_1009961.html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danish-consortium-grows-to-complete-redesigned-plan-for-arctic-patrol-ships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 '야쿠티야', 톰스크 제조업체에서 핵심 부품 공급받아 (2025. 4. 29.)

시베리아 뉴스(Sibirskiy Novostnoy) 보도에 따르면, 톰스크 지역의 두 기업(과학생산기업, 마노톰)이 최신 원자력 쇄빙선 '야쿠티야'(Yakutiya)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로 참여했다. 톰스크주 정부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이 쇄빙선에 러시아산 첨단 기술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과학생산기업(TEK R&D and Production Company)은 쇄빙선의 주 추진 에너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증기 압력 조절기와 해양 환경용 특수 전동기를 개발 및 공급했다. 해당 장비는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 운용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아톰플로트(Atomflot)'의 발주에 따라 제작되었다.

또한, 마노톰(Manotom)사는 쇄빙선에 필요한 계측 장비 전반, 즉 압력계(마노미터), 진공계(바큠미터), 복합 압력·진공계(마노바큠미터)를 공급했다. 이 장비들은 암모니아 수용액이나 탄화수소계 가스 등 다양한 유체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모든 계측기가 톰스크에서 부품 제조부터 최종 조립, 검정 및 교정까지 전 공정을 거쳐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톰스크주 투자정책국은 이번 장비 공급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톰스크 기업들이 공급한 장비는 러시아 산업통상부로부터 자국산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북극항로(NSR) 개발과 북극 지역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국가 전략의 실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쿠티야' 쇄빙선은 'Project 22220 시리즈'에 속하는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으로, 최대 3미터 두께의 해빙을 돌파하며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북극 지역 화물 운송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 선박 투입으로 러시아의 북극 고위도 지역 내 전략적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 김지영 jiyeong111@kmi.re.kr

https://arctic-russia.ru/news/atomny-ledokol-yakutiya-poluchil-komplektuyushchie-ot-tomskikh-proizvoditeley/

https://ria.ru/20250413/arktika-2010976070.html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야쿠츠크 자타이 조선소 시범 운영 … 북극 내륙 물류 핵심 거점 육성 (2025. 4. 27.)

러시아 야쿠츠크에서 자타이 조선소의 선체 제작 공장의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다.

자타이 조선소는 2023년 야쿠츠크 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프로젝트에 따라 조선소에서 처음으로 건조될 선박은 '강-바다'급 무동력 화물 바지선으로, 국영 수로 운송사인 "LORP(렌스크 연합 강 운송회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올해는 이와 더불어 첫 번째 페리(도선)와 분리형 다리의 건설도 계획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야쿠츠크 지역 내 정부 지정 개발구역인 선도 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 민간 투자와 극동·북극 개발공사(Corp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Arctic, KRDV)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선도 사회경제개발구역: Territory of Advanced Socio-Economic Development

KRDV는 해당 시설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전기, 가스, 난방, 수도, 하수 시스템 등)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소에는 400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숙소와 기숙사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2024년 3월 발표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자타이 조선소 지분이 야쿠츠크 정부에 이관될 예정이며, 조선소는 202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이 조선소는 북극 지역을 위한 안정적인 북방 물류(북방공급) 체계와 내륙 강 유역 선박 현대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예정이다.

한편, 야쿠츠크 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은 2020년부터 전략적 공간계획 도구로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2023년 9월 5일, 아이센 니콜라예프 야쿠티야 공화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2030년까지의 야쿠츠크 도시권 마스터플랜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했다.

이 마스터플랜은 야쿠츠크를 포함한 극동 25개 도시의 발전을 위한 연방 차원의 도시 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 보건, 교통,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9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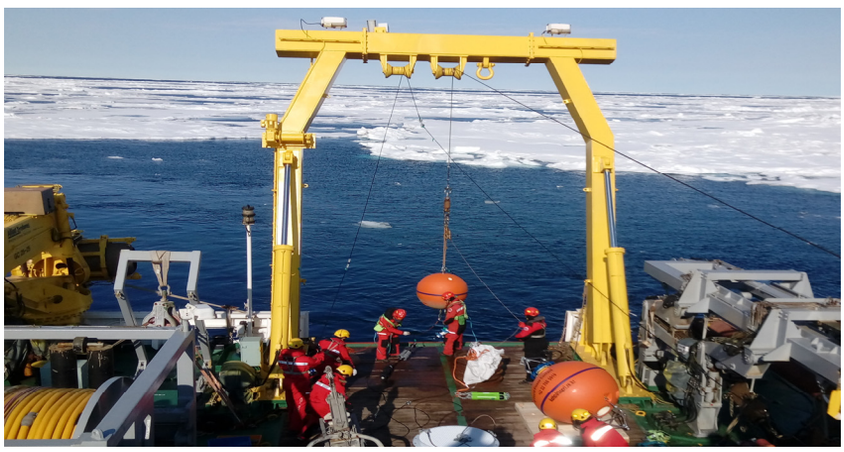
글 김지영 jiyeong111@kmi.re.kr

https://yakutia.mk.ru/social/2025/04/28/dan-start-opytnoy-ekspluatacii-zhatayskoy-sudoverfi-v-yakutii.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dzen.ru%2Fnews%2Fsearch

옵서버
국가 정책

한국

한국, 세계 최초 대서양화(Atlantification), 서북극해까지 확장 확인 (2025. 4. 1.)



글 정다현 dhj82@kmi.re.kr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1098&bbsSeq=10&menuSeq=971

그림1: 2024년 아라온호 동시베리아해 현장탐사 활동

그림1 설명: 한국형 장기계류관측시스템에서 연 단위 관측 자료 회수(위), 북극해빙에 정박한 아라온호와 해빙의 특성을 측정 중인 연구팀(아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북극해 대서양화 현상'(이하 '대서양화')이 태평양과 닿아 있는 서북극해까지 깊숙이 확장되고 있음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해빙 감소와 해양 생태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서양화(Atlantification)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서양의 따뜻하고 짠 해수가 북극해로 유입되면서, 북극해의 수온과 염분이 증가하고 해빙이 녹는 등의 해양환경 변화가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중층의 고온·고염 해수가 표층으로 상승할 경우, 해빙 감소는 물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지연구소의 조경호, 정진영, 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미국 알래스카대학교 등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2017년부터 7년간 동시베리아해에 한국형 장기계류관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서북극해의 수직적 대서양화 확산을 관측했다.

옵서버 국가 정책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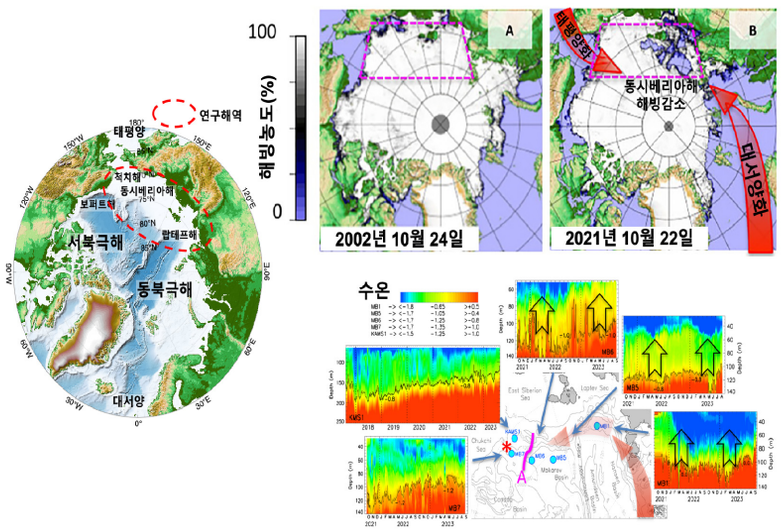


그림 2: 북극 동시베리아해 탐사해역 및 장기관측 수온 시계열 자료.

그림 2 설명: 서북극해 연구해역(왼쪽), 대서양화 확장에 따른 동시베리아해 영향과 2000/2020년대 북극해 해빙 분포(오른쪽 위), 2020년 전후 동시베리아해 수온 장기 관측 자료(오른쪽 아래)

연구팀은 “대서양화는 열과 염분뿐만 아니라 영양염도 표층으로 운반해 해양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양염 증가로 인해 식물플랑크톤 및 해빙 미세조류 등 북극 해양 일차생산자의 생산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접근이 어려운 서북극해에서 독자 기술로 해양변화를 정밀 분석한 사례로, 향후 북극 해빙 및 생태계 변화 예측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극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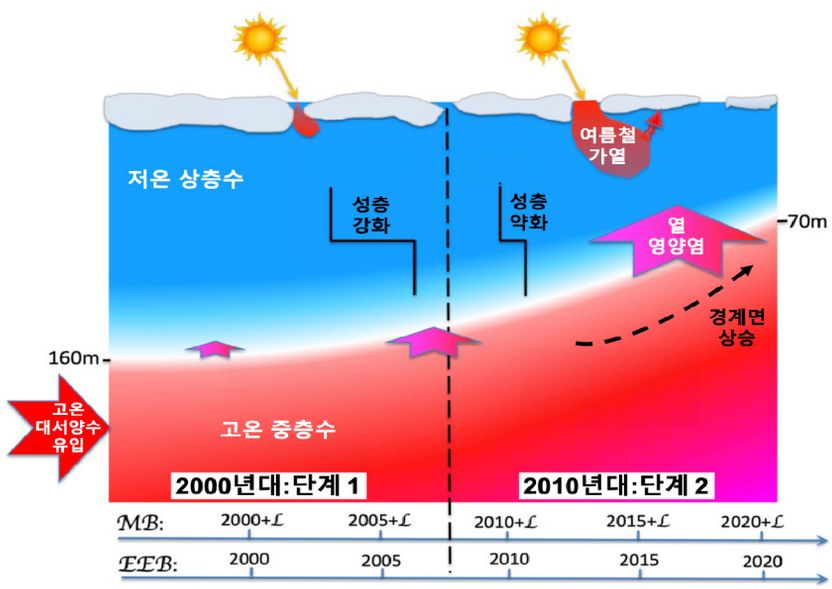


그림 3: 대서양 해수 수직 분포 변화.

그림 3 설명: 시간에 따라 대서양화가 서북극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수직 단면 모식도. 대서양화의 영향을 받은 고온 중층수 영역의 상단이 2000년대 대비 2020년에 90미터 상승함

옵서버
국가 정책

중국

중국, 러시아 생산 북극 LNG 추가 구매 검토 (2025. 4. 21.)

중국이 올해 러시아산 LNG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최근 중국 주러시아 장한후이(Zhang Hanhui) 대사는 자국 수입업체들이 러시아산 LNG 구매를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북극권 야말 LNG와 극동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LNG를 공급받고 있으나 두 개 시설 모두 생산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제재로 건설이 지연됐던 북극 LNG 2 프로젝트의 생산 재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Train 1 및 Train 2에서 최근 가스 플레어링이 포착되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 운전 또는 설비 점검 외에도 본격적인 생산 재개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25년 1월 이후 새로운 미국 제재가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제재 회피 우려도 다소 완화된 상황이다. 중국으로의 직접 선적은 여전히 어려우나 캄차카 반도에 위치한 부유식 저장 바지선('Koryak')을 통한 선박 환적(ship-to-ship transfer)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해당 시설 역시 제재 대상이므로 리스크는 상존한다.

반면, EU는 러시아산 LNG 수입 중단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안건은 EU 집행위원회 발표가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재 발효에는 회원국 간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헝가리·슬로바키아 등은 여전히 러시아 가스에 의존, 프랑스·벨기에는 북극산 LNG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EU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고조된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한 바 있어 러시아산 LNG의 유럽 내 시장 접근성이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미·중 간 관세 갈등은 러시아산 LNG가 중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글 김은우 hisgrace@kmi.re.kr

https://www.highnorthnews.com/en/china-looking-buy-more-russian-arctic-lng-eu-aims-announce-plans-may-phase-out-imports

옵서버
국가 정책

중국

중국, 북극 보퍼트해에서 수중 음향 기술 시험 (2025. 4. 16.)

중국 연구진이 북극 보퍼트해에서 수중 음향 기술의 획기적 진전을 이뤄내며,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서의 잠수함 탐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얼빈공정대학(Harbin Engineering University)의 한샤오(Han Xiao) 교수팀은 중국 음향학 저널 '악타 아쿠스티카(Acta Acustica)'에 발표한 논문에서 주파 음원의 깊이를 93% 정확도로 판별하고, 선박은 100%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이는 2020년 중국 제11차 북극 탐사에서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됐다.

보퍼트해는 미 해군의 전략 작전 구역이자 알래스카로 통하는 핵심 수역으로, 이중 음향 덕트(double duct)라는 독특한 수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음향 에너지가 장거리 전파될 수 있음을 확인, 장거리 탐지·통신에 활용 가능한 고정밀 심도 측정 기술을 구현했다. 600Hz 대역에서 낮은 주파수의 음파가 해양 층을 넘나드는 현상을 활용해 단 6개의 센서 배열로도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며, 빙하 반사와 환경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연구진은 300Hz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정확도가 낮아지고 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 탐지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퍼트해는 풍부한 해저 자원과 더불어 미·러 해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중국의 이번 기술 진전은 북극 내 군사·과학 경쟁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2020년 중국 쇄빙선 쉐룽 2호(Xue Long 2)가 수행한 2만 2,200km 북극 원정 도중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탐사에서는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생물 다양성 변화 등에 대한 종합 연구도 병행되었다.

글 김은우 hisgrace@kmi.re.kr

https://www.scmp.com/news/china/science/article/3306777/arctic-advantage-chinas-new-tech-boosts-sub-detection-capabilities-near-alaskan-waters

남극소식

중국, 남극에 '삼협 남극의 눈' 전파망원경 가동 (2025. 4. 8.)

중국이 남극 중산(Zhongshan) 기지에 차세대 전파·밀리미터파 망원경 '삼협 남극의 눈(Three Gorges Antarctic Eye)'을 공식 가동하며 극지 천문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망원경은 중국삼협대학(China Three Gorges University, CTGU)과 상하이사범대학(Shanghai Normal University, SHNU)이 공동 개발한 구경 3.2미터 규모의 고성능 장비로, 지난 4월 3일 중산기지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CTGU는 "'삼협 남극의 눈'이 은하계 내 중성 수소 및 암모니아 분자의 스펙트럼 라인 관측을 시작했으며, 성간 가스의 동역학과 별 형성 과정 연구에 핵심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남극의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전파망원경 구축 기술 확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SHNU의 장이(Zhang Yi) 부교수는 "이 장비는 남극 천문대 건설의 기술적 병목을 돌파했으며, 향후 준밀리미터파(submillimeter-wave) 망원경 설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파에서 저주파 밀리미터파까지 폭넓은 관측이 가능해, 차세대 남극 천문 기술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CTGU의 쩡샹윈(Zeng Xiangyun) 부교수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바람이 거센 지역으로, 장비 개발과 설치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며, 2023년부터 CTGU와 SHNU가 협력해 혹한과 강풍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CTGU 허웨이쥔(He Weijun) 당서기는 이번 성과를 "극지 연구 장비 기술력의 상징이자 중국의 과학기술 정복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망원경이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CTGU는 중산기지에 연구진을 파견해 지속적인 현장 관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협 남극의 눈'은 기존의 AST3 시리즈 등 중국의 남극 천문장비 구축 전략을 이어가는 프로젝트로, 청정 대기를 활용한 적외선·밀리미터파 관측을 통해 지구 최극지에서 우주 기원을 탐구하는 국제 협력형 천문 거점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글 김은우 hisgrace@kmi.re.kr

https://news.cgtn.com/news/2025-04-08/China-unveils-new-radio-telescope-in-Antarctica-1CoDq8pdfR6/p.html

남극소식

중국, 남극 대륙에서 영향력 지속적으로 확대 (2025. 4. 18.)

중국이 남극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은 마리 버드 랜드(Marie Byrd Land) 지역의 콕스 포인트(Cox Point)에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규 기지를 2027년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러시아가 동일 지역에서 추진 중인 기지 현대화 계획과 맞물려 양국의 남극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신규 기지 예정지는 러시아가 재개장을 추진 중인 루스카야(Russkaya) 기지에서 불과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중국은 현재 남극에서 4개의 상시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남극 반도 지역에 위치한 창청(Great Wall) 기지는 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라스만 힐스 지역의 중산(Zhongshan) 기지는 80명, 쿤룬(Kunlun) 기지는 26명, 2024년에 개장한 가장 최신 기지인 친링(Qinling) 기지는 1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남극 대륙에서 전략적 위치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먼티언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남극에서 7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지역과 주장이 없는 지역에 모두 기지를 설치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대륙 반대편 라스만 힐스 지역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의 프로그레스 II 기지와 중국의 중산 기지는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양국은 최근 이 지역에서 공동 빙하 시추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중국의 남극 확장은 40년 이상 지속된 남극 연구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남극조약에 따라 중국은 자유롭게 기지를 건설할 수 있지만, 투명성과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제6기지 건설을 위한 포괄적 환경 평가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남극점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남극 연구 예산 삭감 계획을 발표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향후 남극 대륙에서의 영향력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글 김은우 hisgrace@kmi.re.kr

https://www.csis.org/analysis/what-can-united-states-do-counter-growing-chinese-and-russian-influence-antarctica

남극소식

IAATO, 정관 개정으로 남극 홍보대사 역할 강화 (2025. 4. 24.)

국제남극관광운영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arctica Tour Operators, IAATO)는 최근 정관을 개정하여 남극에 대한 세계적 보호 의식을 촉진하는 '남극 홍보대사(Antarctic Ambassadorship)'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개정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포르투갈 카스카이스(Cascais)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IAATO 남극 대사위원회(Antarctic Ambassadorship Committee) 스티브 존스(Steve Jones) 위원장은 남극 홍보대사의 정신은 IAATO 사명과 비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전 세계적 보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남극 관광과 교육을 통해 홍보대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정관은 IAATO 회원사들이 남극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의미 있는 방식으로 영감을 받은 '남극 홍보대사'들을 양성하고 지지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들은 교육, 지지활동, 환경적 책임 있는 선택 등을 통해 남극 보호에 헌신하는 개인들이다. '상업적 이익'과 무관하게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고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구도 포함되었다.

이번 발표는 4월 24일 남극 홍보대사의 날(Antarctic Ambassadorship Day)과도 시기를 같이했다. 이날은 전 세계 홍보대사들이 주도하는 활동을 조명하며, 새로운 지지자들이 남극 보호 여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IAATO의 남극 홍보대사 이니셔티브는 남극에 대한 열정을 지닌 전 세계 개인들을 하나로 묶는 커뮤니티다. 이들은 남극조약 체제(ATS)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을 홍보하고, 일상생활 속 환경친화적 선택을 실천하며, 타인을 교육하는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남극 보존에 힘쓰고 있다.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iaato.org/iaato-reaffirms-commitment-antarctic-ambassadorship-update-bylaws

박예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지정학과 기후의 전환점에서 바라본 캐나다의 새로운 북극 외교정책

캐나다는 2024년 12월 북극 외교 정책(“Arctic Foreign Policy”)을 발표하였다. 캐나다의 북극 외교 정책은 모두 4개의 기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축은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여 주권 확립, 실용 외교, 거버넌스 리더십, 포용적 외교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수립 배경

캐나다의 북극 외교 정책은 2024년 국방정책을 업데이트한 「Our North, Strong and Free」와 함께 발표되었다. 캐나다는 2019년에 북극 정책으로 「Arctic Northern Policy Framework(ANPF)」를 발표했다. 캐나다의 북극 외교정책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지정학 및 안보 환경의 급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북극에서 다자협력의 기반이 약화되었다. 과거 북극은 “군사적 긴장이 낮은 협력 지대”로 관리되었으나 이러한 질서가 붕괴 중이며, 북극이사회의 협력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극항로 개방과 자원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비 북극 국가들이 북극의 거버넌스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국내 안보 및 방위 전략의 전환

적성국들이 북극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추구함에 따라 캐나다는 북극과 북부 지역에서 존재감을 긴급히 강화해야 했다. 새 북극 외교 정책은 국방정책인 「Our North, Strong and Free」와 연계하여 첨단기술, 사이버·우주 영역까지 포함하는 종합 안보 전략을 제시한다.

원주민 공동체와의 관계 재정립 필요

북극 외교 정책은 ‘원주민 권리 선언법(UNDRIP Act)’의 이행과 화해(Reconciliation) 노력의 하나로 원주민 공동체의 지식, 문화, 자기 결정권을 정책 전면에 배치하고, 이들의 외교·안보 파트너로서의 동등한 위치를 강조한다.

대외 전략의 재정렬 및 연계성 강화

이 북극 외교정책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래 외교 구상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북극과 인도-태평양을 지정학적 연계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와 유럽 간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NATO) 가입으로 북극권의 NATO 동맹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5개 북유럽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안보 협조 체계의 구축이 시급했다.

경제적 및 외교적 대응 역량 확보 필요

북극 해역 및 자원에 대한 외국의 투자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외교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외교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다자외교 및 국제규범 기반 질서 유지를 위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북극의 전략적 도전과제

2022년 이후의 러시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북극 지정학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다. 캐나다는 러시아와 더 이상 정상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러시아는 10년 이상 북극 기반 시설과 군사력 현대화에 투자해 왔으며, 최근에는 제재와 전쟁 비용으로 인해 중국에 의존성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북극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북태평양 접근로에서 공동 훈련과 순찰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전략적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북극 전역의 진화하는 안보 위협

북극은 북미와 나토 방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방위 구조와 위협 양상이 다르다. 북미 북극은 캐나다와 미국이 개별적, 양자적으로 NORAD(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북아메리카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1957년에 창설한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방위 기구)를 통해 방어하고 있으며, 유럽 북극 지역은 러시아의 군사적 주둔으로 인해 더 경쟁적이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동맹의 북극 방위 태세가 강화되었다. 북극에서 위협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허위 정보, 사이버 공격, 환경 변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캐나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북극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역학관계의 적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극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쳐, 북극이사회와 같은 주요 협력 메커니즘의 기능에 변화를 불러왔다. 북극이사회는 여전히 북극 협력의 중심이지만, 러시아가 참여할 장관급 회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그런데도 북극 국가들은 전문가 수준에서 중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북극 원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면서 북극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방식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시급한 위협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북극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북극 지역사회의 안보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외국 세력의 북극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한편으로 리튬, 구리 등 저탄소 경제 전환에 필요한 중요 광물 개발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개발은 지역사회의 생계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극 국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증가하는 도전

북극은 전통적으로 북극 국가들이 북극 원주민과 협력하여 통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비 북극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극지 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극지 실크로드”를 통한 해운 개발과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비 북극 국가들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북극 거버넌스에서 북극 국가들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북극 자원과 항로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극 외교정책의 4개의 기본 축(Pillars)

캐나다의 주권 확립(Asserting Canada’s Sovereignty)

캐나다는 북극에서의 자국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과 군사력, 연구 보안, 정보 공유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NORAD 현대화와 2024년 국방정책 「Our North, Strong and Free」을 통해 북극 해역과 항로에 대한

군사적 통제력 강화, 과학기술 기반 감시체계 구축, 항공·해양 플랫폼 투자 확대 등이 추진 중이다.

특히, 북극 내 자국의 수역과 항로(예: NWP)에 대한 국제법상 내부 수역(internal waters)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원주민 공동체 간의 공동관리 체계(co-stewardship)를 강조한다.

또한, 캐나다 해안경비대(Canadian Coast Guard)와의 협력으로 해양 안전 및 보안, 과학 연구, 해빙기 대응능력을 증진하며, 이를 통해 해양 영역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용 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Advancing Canada's Interests through Pragmatic Diplomacy)

캐나다는 북극 외교를 실용주의적 접근(pragmatic diplomacy)으로 전환하여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연계 강화,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 중국 등 비북극 국가와의 선별적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 미국 및 북유럽 국가(Nordic states)와의 협력은 북극 안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과학기술 협력, 원주민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고 있으며, △ 알래스카(미국) 및 그린란드(덴마크 왕국)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앵커리지와 누크(Nuuk)에 각각 총영사관 신설 계획을 추진 중이며, △ 러시아에 대해서는 G7 및 다자기구를 통해 공세적 정보 조작(disinformation)과 군사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협력보다는 제한적 관여 방식을 택하고, △ 비 북극국가(한,일, 유럽연합)와는 '규범 기반 질서 지지', '원주민 권리 존중',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조건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국익에 반하는 경우 경계와 대응을 강화한다.

북극 거버넌스와 다자 도전 과제에 대한 리더십 발휘
(Leadership on Arctic Governance and Multilateral Challenges)

캐나다는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 협력체계의 중심 국가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이사회 활동을 복원하며 2029~2031년 의장국 수임 예정인만큼 향후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북극 해양 통치 및 자원 보존, 국제법 기반 분쟁 해결 분야에서 다자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적 북극 외교 접근법 채택
(Adopting a More Inclusive Approach to Arctic Diplomacy)

가장 핵심적 변화는 북극 원주민과 북부 주민의 지식, 경험, 문화, 자기 결정권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 북극 대사(Arctic Ambassador) 신설, △ 원주민 외교관 육성 및 글로벌 무대에서의 대표성 강화, △ 전통 지식(Indigenous Knowledge)의 과학 및 외교 정책 통합, △ 언어, 이동성, 시장 접근성, 무역 역량에 대한 포괄적 지원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법(UNDRIP Act)」의 국내 이행과 연계하여, 캐나다는 북극 외교에서도 원주민의 자기 결정권과 공동 파트너십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화해를 실현하는 외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북극 및 북부 정책 프레임워크(ANPF)와 비교

정책의 목적과 성격의 차이점

2019년에 발표된 「북극 및 북부 정책 프레임워크(ANPF)」는 국내 정책 문서로서 캐나다 북부와 북극 주민, 특히 원주민 공동체의 삶의 질, 지역 개발, 건강, 교육,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둔 포괄적이고 통합된 국내 전략이다.

반면, 「2024년 북극 외교 정책(AFP)」은 국제 외교 전략 문서로서, 특히 지정학적 위협, 안보, 외교관계, 다자주의, 주권 수호 등 외교 및 국제정책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둔다.

전략적 배경 및 문제의식

2019년 ANPF는 주로 지역 기반 개발, 원주민 화해, 사회·문화적 회복력 강화,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에 초점을 맞추며, 당시 상대적으로 낮은 북극 긴장도를 반영한 비군사적, 비지정학적 접근을 하였다.

2024년 AFP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 중국의 북극 진출, 기후변화에 따른 항로 개방과 자원 경쟁, 나토 확장, 사이버·정보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지정학 환경을 반영하여 안보 중심의 실용 외교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표 1〉 캐나다의 두 북극 정책의 비교

구분	북극 및 북부 정책 프레임워크(2019)	북극 외교정책(2024)
성격	• 국내 종합 전략	• 외교 및 안보 전략
주관 부처	• Crown-Indigenous Relations and Northern Affairs Canada	• Global Affairs Canada
중심 가치	• 공동 비전, 포용성, 자립, 지속가능성	• 주권, 실용 외교, 안보, 다자주의
대상	• 북부 주민, 원주민, 준주정부	• Arctic 국가, 비 북극국가, NATO, 동맹국
접근방식	• 공동개발(co-development), 다층거버넌스	• 외교·안보 통합 대응, 정보 공유 및 협력
거버넌스의 목표	• 내부 거버넌스 역량 강화	• Arctic Council, UNCLOS, NATO, G7 등의 외교적 대응
실행 방법	• 지역사회 주도, 지속가능 프로젝트 중심	• 외교 사절 파견(총영사관 신설, Arctic 대사), 외교안보 협의체

자료: 저자 작성

시사점

캐나다의 새로운 북극 외교 정책(2024)은 변화하는 지정학적, 안보적, 기후적 도전 속에서 캐나다의 국익과 주권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북극 및 북부 지역 주민(특히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 정책은 기존의 「북극 및 북부 정책 프레임워크(Arctic and Northern Policy Framework, 2019)」의 국제 부문을 보완하는 외교 전략으로, 캐나다가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다자주의적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정책은 네 가지 전략 축을 중심으로 북극에서의 주권 수호와 더불어, 국내외 원주민 공동체와의 화해를 추진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기후 위협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외교 전략이다. 캐나다는 이를 통해 북극을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하며, 그 중심에 북극 주민과 공동체의 삶과 권리가 놓여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극과 사람

아사바스칸 족의 지속성과 변화: 문화, 자치,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글 김주형 jhkim7664@kmi.re.kr

▮ 들어가며

- 북극 원주민은 북극 지역의 문화적·사회적·환경적 지식을 전승하는 핵심 주체로서, 북극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극 원주민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에서 '상시참여그룹(Permanent Participants)'으로 활동하며, 북극 거버넌스 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6개 북극 원주민 상시참여그룹 중 하나인 북극 아사바스칸 이사회(Arctic Athabaskan Council , AAC)로 활동하는 아사바스칸(Athabascan)의 현황, 역사, 문화, 그리고 북극 거버넌스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한다.

▮ 아사바스칸 공동체의 전통 생활방식과 사회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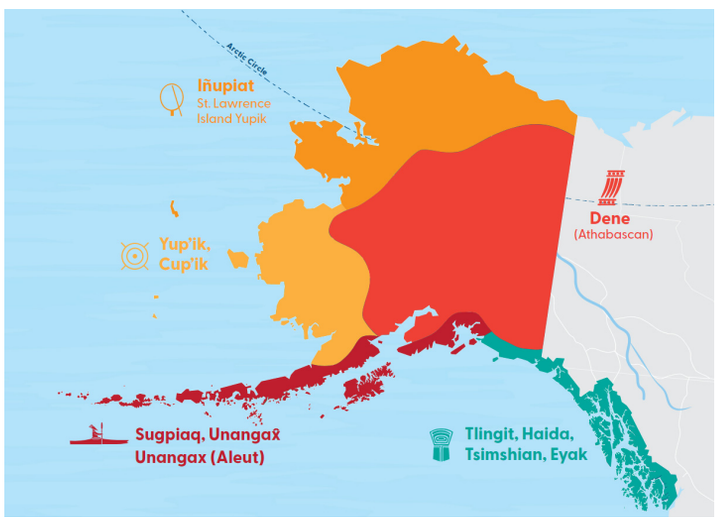
- 아사바스칸 계통의 원주민들은 미국 알래스카의 북극 및 아한대 지역, 캐나다의 유콘 준주(Yukon Territory)와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전역에 걸쳐 거주해 왔으며, 이들이 전통적으로 점유해 온 지리적 범위는 약 300만 ㎢에 달한다. 알래스카 내륙 북부의 브룩스 산맥에서 남중앙의 쿡 인렛(Cook Inlet)까지, 그리고 서쪽의 노턴 만(Norton Sound)에서 남동쪽으로는 캐나다 북부지방 일부까지 포함된다. 이들은 다양한 방언과 문화를 지닌 여러 하위 집단으로 나뉘며, 총 11개의 고유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통적으로 아사바스칸 사람들은 물고기와 야생동물을 따라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 생활 방식을 유지해 왔다. 주요 거주지는 유콘(Yucon) 강, 타나나(Tanata) 강, 수스티나(Susitna) 강, 쿠스코퀴김(Kuskokwim) 강, 코퍼(Copper) 강 등 알래스카의 주요 하천 인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강 주변에 형성된 공동체는 자원 기반의 생존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오늘날 알래스카 내륙 및 남중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명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사바스칸 전통 명칭에서 유래했다. 대표적으로 '위대한 존재'를 뜻하는 '디날리(Denali)'는 아사바스칸 족의 언어와 세계관이 지리적 명칭에 반영된 사례로 꼽힌다.

- 이와 같은 지리적 범위와 언어적 다양성은 아사바스칸 족이 알래스카 지역 내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한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적 지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그림 1. 아사바스칸 문화지역



자료: https://www.travelalaska.com/things-to-do/alaska-native-culture/cultures/athabascan

- 알래스카 내륙지역에 거주해 온 아사바스칸 족은 계절에 따라 거주지를 달리하며 살아온 유목형 공동체였다. 이들은 겨울에는 마을을 조성하고, 여름에는 어로 활동을 위한 임시 캠프를 마련하여 생활했으며, 보통 20~40명 규모의 소규모 단위로 이동하며 활동하였다.

- 주거 형태는 환경과 계절에 따라 다양했다. 추운 겨울철에는 일부 아사바스칸 족은 지면 아래에 일부 묻힌 반지하식 구조물에서 거주했고, 다른 이들은 순록이나 무스(말코손바닥사슴) 가죽, 또는 자작나무 껍질을 이어서 덮은 돔 형태의 집을 사용했다. 또 일부는 직사각형 형태의 통나무집에 흙으로 만든 지붕을 얹은 형태의 주택에서 생활하였다. 여름철 주거지는 주로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었으며, 이동 중에는 관목이나 자작나무 가지를 이용해 간단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생활했다.

- 아사바스칸 사회는 모계 중심의 사회 구조이며, 집단 내 주요 결정은 원로들이 주도했다. 특히 가족 단위는 여성과 그녀의 오빠, 그리고 양측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외삼촌(어머니의 오빠)이 조카들의 양육과 사회화를 책임지는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씨족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내면화하게 된다.

- 교역은 아사바스칸 남성들의 주요 활동 중 하나였으며, 이들은 틀링깃(Tlingit), 유픽(Yup'ik), 수그피악(Sugpiaq), 이뉴피악(Iñupiaq) 등 다른 공동체 및 문화권의 남성들과 교역 동맹을 맺고 외교와 교환의 국제적 체계 속에서 상호 교류를 이어갔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교역 파트너들은 때로 적대 관계에 있던 부족이기도 해, 그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자작나무 껍질과 무스 가죽으로 만든 카누, 썰매, 개 등을 운송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무스와 순록의 가죽을 이용해 만든 튜닉, 모카신 등을 제작해 의복으로 활용했다.
- 이러한 생활 양식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형성된 생존 전략이자, 공동체의 유대와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아사바스칸 문화의 핵심을 보여준다.

그림 2. 아사바스칸 복식

자료: https://athabascancuture.weebly.com/about.html
https://kaysiemccumber.wordpress.com/2016/11/10/athabaskan-beadwork-week-9/

▮ 유럽인 도래 전후의 아사바스칸 정치 변화

- 유럽인이 북미 대륙에 도착하기 이전, 아사바스칸 사회에서 지도자는 상시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지도자의 필요성은 다수의 가족 단위가 한데 모여 집단적으로 사냥 및 채집 활동을 할 때에 한정되었다. 이때 각 공동체는 특정 과업에 가장 적합한 역량을 지닌 인물을 일시적인 지도자로 선출하였다. 공동체가 해산하면 해당 지도자의 권한 또한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
-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남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 '포틀래치(potlatch)'라고 불리는 선물 증여 의식을 빈번히 개최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지도자의 자질 중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공동체 내 위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 그러나 유럽계 이주민, 특히 백인들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아사바스칸 족 내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었다. 이 시기부터 지도자는 단순한 공동체 내 대표를 넘어, 자신의 공동체와 백인 상인들 간의 중재자(middleman)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지도자의 기능과 책임의 범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을 의미한다.

▮ 정치 조직

- 정치 조직의 형태는 아사바스칸 족이 거주하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아사바스칸 족은 연방 및 주 차원의 법적 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기반 법률로는, 부족 정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인디언 재조직법(Indian Reorganization Act)」과 마을 단위로 영리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 및 자산을 관리하도록 한 「알래스카 원주민 청구정산법(Alaska Native Claims Settlement Act, ANCSA)」이 있다. 이에 더해, 알래스카 주 법률에 따라 인정된 정치 단체 및 전통적인 원주민 공동체 조직들도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캐나다의 아사바스칸 족은 연방 정부의 원주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정치 조직을 형성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디언법(Indian Act)」에 따라 설립된 밴드(band) 체계가 있으며, 이는 원주민 공동체의 기본적인 행정 단위로 기능한다. 또한, 일부 공동체는 연방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자치권을 부여받아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 자치 원주민 공동체)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독립적인 정부 형태로 자율적인 내부 행정을 수행한다.

- 1971년 제정된 ANCSA는 알래스카 지역에서의 원주민 고유 토지권(aboriginal title)을 소멸시키는 대신, 토지 및 자산의 집단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였다. ANCSA는 알래스카 전역을 12개의 구별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영리 목적의 민간 법인인 알래스카 원주민 지역법인(Alaska Native Regional Corporations)과 200개 이상의 마을법인(Native Village Corporations)을 설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인은 모두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그 주주는 해당 지역에 등록된 알래스카 원주민들로 한정되었다. ANCSA의 제정 이후에는 기존 공동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이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인 부족 정부로 이전되기도 하였다.

- 이는 미국 본토(하위 48개 주)에서 주로 채택된 '보호구역(reservation)' 기반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알래스카에서는 보호구역이 아닌 원주민 소유의 '영리법인(corporate ownership)'이 중심 구조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북극 아사바스칸 협의회(Arctic Athabaskan Council, AAC)

• 2000년에 설립된 북극아사바스칸이사회(Arctic Athabaskan Council, AAC)는 알래스카,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에 걸쳐 분포한 76개 공동체의 4만 5,000명 이상의 원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AAC는 아사바스칸 족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체 간 관계 구축, 네트워크 형성, 파트너십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 AAC 로고

Arctic Athabaskan Council

자료: https://arcticathabaskancouncil.com/

• 2021년 2월부터 AAC는 「2021~2026 5개년 전략계획(Five-year Strategic Plan)」의 목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2021년 2월 8일부터 AAC는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GA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북극 리더십 이니셔티브(Global Arctic Leadership Initiative, GALI)」를 시작하였다. 이 협력을 통해 AAC는 조직 운영 전반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조직의 핵심 사명 수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AAC는 최근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 우선, 직원 교육과 연구자·계약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결과중심관리(RBM, Results-Based Management) 방식을 조직의 운영에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인지 분석 플러스(Gender-Based Analysis Plus, GBA+) 연구를 통해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적 과제들을 명확히 파악하였고, 원로(Elders)와 청년 자문위원단(Youth Advisors)을 조직 구조에 전략적으로 포함시켰다.

- 이와 같은 포용적 조직 구조의 강화는 AAC가 북극 연구 및 정책 논의의 국제 무대에서 아사바스칸 원주민, 여성, 청년의 의견을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원로의 참여 확대는 북극이사회가 아사바스칸의 전통지식(Indigenous Knowledge)에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관점과 데이터를 국제 연구에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이 북극 포럼 및 북극이사회 회의에 AAC 대표단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조직의 국제적 대표성 및 발언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 이러한 조직 역량의 확장은 내부적으로는 아사바스칸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고, 외부적으로는 문화·사회·경제 발전 및 환경보호에 있어 지속가능한 기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출처>
https://www.travelalaska.com/things-to-do/alaska-native-culture/cultures/athabascan
https://athabascancuture.weebly.com/about.html
https://kaysiemccumber.wordpress.com/2016/11/10/athabaskan-beadwork-week-9/
https://arcticathabaskancouncil.com/
https://ancsaregional.com/about-ancsa/
https://arcticathabaskancouncil.com/about

극지 국제행사 소식

2025 한국-노르딕 혁신의 날 평등 세션: 해양 산업의 미래를 여는 혁신

극지e야기(KPoPS)는
북극과 남극의 사회, 경제, 인문, 자연, 원주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극지정보 포털입니다.

http://www.koreapolarportal.or.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극 및 남극과 관련한 해외 주요 최신뉴스를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MI 홈페이지-정기간행물-극지해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www.kmi.re.kr